

사무엘상 32. ‘시글락’을 약탈한 아말렉 (삼상 30 장 1-30 절)

들어가기

지난 시간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다윗은 ‘시글락’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비극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를 따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시글락’을 비운 틈을 타서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공격하여 다윗의 가족은 물론 ‘시글락’에 살던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약탈하고 사로잡아 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더 잘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명분아래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가드로 망명하고, 나아가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 노릇까지 하였던 다윗은 오히려 이곳에서 더 큰 불행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1.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잡혀간 가족들로 인해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 절)

1)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시글락’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의해 완전히 초토화 되어 있었습니다. (1-2 절)

■ 2 가지 궁금증?

- 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사흘(3 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다는 것!
 - ✧ 그런데, '아벡'에서 '시글락'까지는 약 75km 정도 떨어져 있었음.
 - ✧ 그럼 왜 3 일이나 걸렸을까?
- ② 2 절을 주목해 보면, 당시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략했을 때, 그곳을 다 불사르며 초토화 시키면서도, 늙은 여인들까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생포해 갔다는 것!
 - ✧ 참고로 원어적으론 여인들을 비롯한 그 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생포해 갔다는 것,
 - ✧ 그럼, 왜 당시 아말렉 사람들은 저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생포해 갔을까?

당시 아말렉 사람들이 이같이 ‘시글락’의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생포해 간 것은 결코 저들이 인정이 많아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한 사람도 해하지 못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섭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자기 백성을 위기 가운데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섭리하심이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잡혀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큰 슬픔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3-6 절)

■ 당시 저들의 고통과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두 장면

- ① 더 이상 지쳐 올 힘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통곡했다는 것!
 - ✧ 만약 내가 당시 다윗이나 그의 군사들 중 하나였다면 얼마나 슬펐겠나?

② 그런데 이때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

✧ 참고로 6 절에서 백성들이 '슬퍼했다' 말은 원어적으로 '괴로워했다'는 뜻으로, 아마도 저마다 자녀들을 잃었다는 생각에 극도로 괴로워하다 순간 평정심을 잃어버린 듯.

- 목사 개인적 생각:

부모 문제보다도 자식문제 앞에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닐까?
(예: 아들의 무릎을 꿇은 사건으로 존경 받던 안수집사님 가정이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심)

■ 그럼 왜 저들은 이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했을까? 과연 이런 행동은 바람직한 행동일까?

① 우선 저들이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려 했던 것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ㄱ)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가드의 '시글락'으로 오게 된 것은 다윗의 결정 때문.

(ㄴ) 다윗이 아말렉을 먼저 공격하여 진멸시켰기 때문에 결국 아말렉 사람들의 분노를 키워 자기 자식들이 보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

① 그럼, 이런 저들의 행동은 옳은 것인가? ->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음!

✧ 특히 5 절, 다윗도 동일하게 아내와 가족을 잃고 슬픔과 고통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

- 이 장면 속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드신 생각은?

- 목사 개인적인 생각

① 비록 저들이 다윗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 결심하며 다윗을 쫓았지만, 개인적인 이익과 자기 가족들이 관련된 사건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사람들로 변했다는 것.

✧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며 쫓겠다고 결심하지만, 막상 개인적인 이익이나 가족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건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약해지는 연약함이 있지 않나?

② 지도자가 짊어져야 할 책임과 그에 따른 아픔과 고통이 있음을 깨닫는다는 것.

✧ 다윗은 결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서 '시글락'으로 온 것이 아니었음!

✧ 또한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하여 전리품을 얻고자 한 것은 결코 다윗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는 것!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볼 때. 오늘의 모든 책임은 결국 다윗이 져야 했다는 것!

✧ 위기 가운데서 한 집안을 지키려 힘쓰는 가장인 아버지의 책임, 교회의 지도자들과 목회자의 책임을 먼저 이해하고. 항상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를, 그리고 기도로 힘을 더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부탁!

아무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다윗이 이렇게 큰 재난을 겪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결국은 눈 앞의 안전과 평안을 얻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이스라엘을 떠나 우상의 나라 블레셋으로 이주한 데 있었음은 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살면서 때로는 생각지 못한 고생과 어려움을 만나다 하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안에서, 언약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울고 웃으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주목: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나요? (6 절)

① 우선 ‘크게 다급해 했다’ 고 기록! (6a)

✧ ‘다급하였다’ 는 말은 원어로는 ‘야차르’ 라는 말로 '답답해하다', '곤란해하다', '괴로워하다' 란 의미. (ex: 창 32:7, 샬 2:15, etc.)

②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새 힘을 얻었다는 것!

✧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6b)

✧ ‘그의 하나님 여호와’ 란 말은 원어적으로 ‘자신의 하나님’ 이란 말!

✧ ‘힘입고’ 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안에서’ 라는 말!

✧ ‘용기를 얻었더라’ 는 말은 원어적으로 ‘스스로 힘을 내다’ 라는 말!

곧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힘을 내어 슬픔과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일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난관을 극복하는 다윗의 본래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때로는 자기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고통가운데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도가 받는 고난이나 어려움도 하나님의 축복이란 사실을 깨달으며, 다윗처럼 그 순간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다윗은 즉시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였습니다. (7-10 절)

1)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은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7-8 절)

■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_____’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7 절)

- ‘에봇’은 제사장의 옷 - 그 옷에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우림과 둠뭉’ 이라는 하나님의 판결 패가 있음.

■ 여기서 주목할 것 두 가지!

①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는 다윗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백성들에게 아무런 변명이나 반론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 다윗은 그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바라는 믿음의 자세를 취했다는 것!

✧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인생의 고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

- ②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정한 뒤로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시 등장했다는 것!
- ✧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신앙적 차이는 바로 다윗의 출발점은 항상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에 있었다는 것!
- ✧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에 다윗은 오로지 자기 생각에 따라 결정했고, 지금껏 자기 생각에 따라 움직였다가 오늘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을 것!
- ✧ 그래서 다윗은 당장 저들을 추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한 정답이겠으나, 아비아달에게 제사장의 예복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그것부터 먼저 하나님께 묻고 확인함으로, 다시 믿음으로 행동하고자 했다는 것!

한 신학자는 ‘교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라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먼저 기도하고 움직이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 다윗의 질문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은? (8 절)

- ① 다윗의 질문 ->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8a)
- ② 하나님의 응답 ->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8b)
 - ✧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찾게 될 것이라 확신시켜 주셨다는 것!
 - ✧ 참고로 ‘따라잡아, 찾겠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잃어버린 것만을 되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을 쳐서 저들의 모든 소유까지도 다 얻게 하겠다는 의미!

■ 여기서 주목 할 것 한가지!

- 28 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으나,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
- ✧ 결국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같은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의 왕권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버리셨으나,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강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

2)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즉시 군사들을 데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쫓았습니다. (9-10 절)

■ 주목 할 것 두 가지.

- ① 다윗과 함께 한 육백 명의 용사들이 다윗을 따랐다는 사실!
 - ✧ 저들이 누구인가? -> 좀 전까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이들이었다는 사실!

- ✧ 그러나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다윗을 따라 다시 하나되어 한 명도 낙오자 없이 함께 고통과 슬픔에서 일어섰다는 것!
- ✧ 승리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

② 이때 다윗은 추격에 지진 200 명을 ‘브솔’ 시내에서 쉬게 한 뒤, 400 명만 이끌고 아말렉을 쫓았다는 것!

- ✧ 참고로 ‘브솔’ 시내는 ‘시글락’에서 남쪽으로 약 24km 떨어진 지점.
- ✧ 이는 다윗이 지금 추격의 시급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또한 무리한 행군으로 지친 군사들의 상태도 결코 잊지 않고 저들을 보살폈다는 사실!
- ✧ 이는 분명 사울이 아말렉을 공격할 당시, 모든 백성들에게 결코 먹지도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공격하라 했던 것과는 분명하게 대조적!
- ✧ 더군다나 당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군대의 1/3 인 200 명이란 숫자를 쉬게 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결정이었을 것!
- ✧ 곧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사람의 숫자나 능력에 있지 않음을 확신하며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연약한 이들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란 사실!

3. 이때 다윗은 들에서 죽어가던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0-15 절)

1)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만 할 것은 바로 이 애굽 소년은 누구인가? 라는 사실!

① 그는 병들어 굶어 죽어가던 이방인이었음!

- ✧ 우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 정신을 차리고 기력을 회복하도록 도와 줌.
- ✧ 곧 다윗은 당장 자신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생명을 불쌍하게 여기며 긍휼함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
- ✧ 과연 나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서 이런 정과 긍휼이 우리 안에 있을까?
(요즘 한국은 응답하라는 드라마가 유행 -> 잃어버린 정에 대한 갈급함이 아닐까?)

성경은 잠언 24 장 12 절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를 감찰하시고 그대로 갚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못 봤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 사랑은 결코 입술의 열매가 아닌 마음과 행동의 열매라는 요한일서 3 장 18 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 잊지 말로 항상 주님 닮은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② 그런데 막상 살펴놓고 보니, 그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고, ‘시글락’을 침략에 함께 한 사람!

- ✧ 곧 그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불사르고 가족들을 잡아간 원수였다는 것!
- ✧ 만약 우리가 다윗 일행 중 하나였다면, 이 사실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2) 이때 다윗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하며,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그에게 물어보며, 자신의 길잡이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15 절)

- 이에 애굽 소년은 다윗에게 두 가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 ① 자신을 죽이지 말 것!
 - ② 자신의 주인의 수중에 다시 넘기지 말 것!

4. 다윗은 소년의 인도로 결국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 공격하여, 저들에게 약탈당한 모든 것들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16-20 절)

- 1) 애굽 소년은 다윗을 아말렉 사람들의 거처로 정확히 인도하였습니다. (16 절)
 - ✧ 애굽 소년의 인도 장면은 분명히 당시 일정한 장소에 정착지 않고 떠돌며 살았던 아말렉 사람들을 다윗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섭리!
 - ✧ 이때 아말렉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적인 약탈에 만족하며 방심하여 먹고 마시며 취함.

- 2) 다윗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해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17 절)
 - ✧ 아마도 새벽부터 기습적으로 저들을 공격했던 듯!

- 주목할 것 한 가지: 이때 아말렉 사람 중에는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 명의 소년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생명을 보존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
 - ✧ 그런데 사실 다윗의 군대가 400 명 이었다는 것!
 - ✧ 나아가 여기서 ‘소년들’은 당시 가축 관리의 임무를 맡은 이들로 저들은 속소나 연회장에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따로 가축을 관리하며 거했기 때문에 다윗이 기습 공격을 했을 때, 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것.
 - ✧ 곧 저들을 제외한 모든 아말렉 사람들이 이날 다윗과 400 명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

- 3)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대로 사로잡혔던 모든 백성들과 빼앗겼던 재물들을 무사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19-20 절)
 - ✧ 주목할 것은 자신들의 것뿐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그 동안 다른 지역에서 약탈했던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었다는 것!
 - ✧ 이때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윗의 전리품이라 인정하며 다윗에게 돌렸다는 것!

4. 그러나 다윗은 아말렉에게서 얻은 전리품들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21-30 절)

- 1)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공격했던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브솔에 남아 전투에 참여하지 아니한 이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고 다윗에게 요청하였습니다. (22 절)

- 주목할 것: 성경은 저들을 ‘악한 자들이요 불량배들’ 이라고 기록했다는 것!
 - ✧ 원어적으로 ‘마땅히 행할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이란 의미
 - ✧ 참고로 성경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2:12), 사울의 왕권을 부정하려 들었던 자들(10:27). 그리고 다윗의 요구를 모욕적으로 거절했던 나발(25:17,25) 등을 이 단어로 묘사.

✧ 학자들은 이들은 앞에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선동했던 이들이었을 것이라 해석.
또한 저들의 제안은 매우 악한 제안이라 지적 - ‘입은 주되 먹을 것은 주지 말라는 것!’

2) 그러나 다윗은 저들의 요구를 거절하며 앞으로 남아 있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누어 줄 것이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① 우선 다윗은 ‘나의 형제들아’ 라고 모든 백성들을 불렀음!

✧ 곧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요, 한 가족이란 사실을 확인시킴!

② 오늘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축복임을 확인시킴!

✧ 곧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지적!

③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은 공평하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눌 것임을 선언!

✧ 그런데 사실 이런 분배의 원칙은 이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규례!
민수기 31 장 27 절 이하, 모세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전리품 중 절반은 싸움에 참전한 '군인들'에게, 그리고 절반은 진영에 머물러 있던 '백성들'에게 분배하도록 하도록 규례를 세웠음.

✧ 그러나 아마도 오늘 다윗이 이 규례를 재확인 하기 전까지는 잘 지켜지지 않았던 듯.

✧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아닐까?

3) 다윗은 자신에게 돌린 모든 전리품을 유다 남쪽의 모든 장로들에게까지 골고루 나누며 저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26-31 절)

✧ 본문에 기록된 대부분의 성읍은 다 ‘시글락’과 인접한 유다 남쪽에 위치한 성읍들임.

✧ 또한 31 절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다’는 기록을 볼 때,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자신을 배려한 지역과 장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렇게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며, 개인이 받은 은혜가 결코 개인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함께 나누어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내는 다윗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바른 길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로 묵상했거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 중보기도 나눔.